

하늘과 바다 그리고 자유 패러세일링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비행을 꿈꿨다. 새와 박쥐, 곤충 등 모든 생명체들의 비행역학을 관찰하고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날개를 설계했다. 수년간의 실험을 통해 그는 “인간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 그가 지금의 한강변에서 패러세일링을 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글 박순모 기자



패러세일링은 원래 공수부대 훈련용이었다.

패러세일링은 낙하산(Parachute, 패러슈트)과 항해(Sailing, 세일링)가 합쳐진 단어다. 일정동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낙하산을 강력한 줄로 연결해 날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패러세일링의 탄생은 1950년대 프랑스에서 공수부대 훈련용으로 개발한 것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스포츠로 진화한 것이다. 이것이 1960년대에 미국에 도입되어 대중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보다 모터보트를 이용해 강이나 바다 위에서 패러세일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용자가 느끼는 속도감과 스릴이 땅 위에서보다 크기도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서도 더욱 안전하기 때문이다.

패러세일링의 구성 요건은?

하늘을 나는 가장 손쉽고 편안한 방법이 패러세일링이다. 초보자들도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쉽게 하늘을 나는 새가 될 수 있다. 패러세일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터보트다. 모터보트의 동력으로 낙하산의 비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마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모터보트는 90마력 이상이 되어야 하고 모터보트와 낙하산의 거리는 짧게는 20m에서 길게는 100m까지 허용된다. 낙하산과 연결되는 선의 길이가 결국 비행의 높이를 결정하게 된다.

비상하는 지점에 따라 갖춰야 할 장비도 다르다. 물 위에서 비상할 경우에는 구명조끼가, 땅 위에서 비상할 경우에는 구명조끼 대신 헬멧이 필요하다. 패러세일링을 하는 장소는 호수나 바닷가, 강변 등 장애물이 없으며 넓게 트여 견인하는 자동차나 모터보트, 비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위험도 없는 장소여야 한다. 장소의 길이는 줄 길이의 10~12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비상하는 여객기를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다. 대부분 조종은 동력원 즉, 모터보트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므로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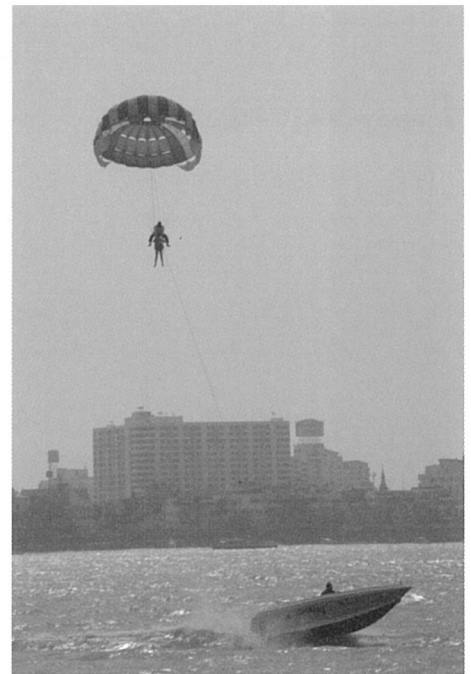
국내에서도 패러세일링을 즐길 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패러세일링은 해외토픽에서나 볼 수 있는 독특한 레저스포츠였다. 그리고 대부분 해외 패키지여행에서 즐길 수 있었던 레저스포츠였으나, 지금은 국내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도 초기엔 서울의 한강, 전라남도의 남해, 제주도 해안가 등 특정지역에서만 가능했었지만, 바닷가가 아닌 강에서 패러세일링을 즐길 수 있도록 고안하는 곳이 늘고 있다. 레저인구의 증가세와 맞물려 대중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어 패러세일링을 즐기는 인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다빈치가 못 이룬 비상(飛上)의 꿈을 이뤄보자

국내에서 패러세일링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수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그리고 양쪽 허벅지와 허리에 안전띠를 착용한다. 이 안전띠를 '하네스'라고 하는데 낙하산, 패러글라이딩, 번지점프를 할 때도 착용한다. 안전장비까지 착용을 마쳤으면 모터보트를 타고 물위의 비상지점까지 이동한다.

안전요원이 장비를 점검한 후, 낙하산 양옆에서 낙하산을 잡아준다. 낙하산의 내부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륙 준비가 끝나면 이용자에게 출발 준비를 알리고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한다. 패러세일링도



예전과 달리 기술과 장비의 발전이 이뤄져, 과거에는 갑판이 넓은 배에서 일정 거리를 도움닫기하여 이륙했으나, 최근엔 이용자가 제자리에서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륙이 이뤄진다. 모터보트가 시야에서 멀어지는 순간 이용자는 하늘로 비상하게 된다. 공중에서는 모터보트와 연결된 부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찔한 기분도 잠시, 새가 되어 하늘을 나는 기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여름휴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루지 못했던 비상의 꿈을 이뤄보자. 패러세일링을 통해서. ☺